

최학룡(서진학원 원장)



1. 아침 해가 뜨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시간. 지친 몸을 일으키고 서서히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할 시간. 이렇게 새벽을 지새워온 세월도 꽤 오래되었다. 인터넷과 꽤 오랫동안 시름하며 영어자료 찾는답시고 아침이 되어야만 집으로 향했던 그 하루하루는 변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달라진 일로 새벽이 더 바빠졌다.

불과 몇 개월 전 욕심에 찬 마음으로 소셜강의를 했던 호남대 교육장이 생각난다. 구글 문서도구 강의! 친구 영진이의 생방송을 겨우겨우 들어가며 준비하고 배우기 시작한 SNS의 세계를 아이들이 아닌 대상으로 강의하게 되는 설렘으로 욕심껏 준비하고, 두 시간 반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풀 어갔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료를 찾고, vCorea의 여러 강사들의 블로그를 찾아다니며 배우고 정리한 자료들을 강의장에서 풀어나갈 때 참가자들의 열의는 학원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나 자신도 서서히 변해가게 되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끝나는 시간은 항상 12시가 넘었고, 그렇다고 그 이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는 많지 않았기에 주로 영어자료를 찾거나 만들고,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영어 학습에 필요한 학습프로그램을 찾아 만난 옛, 친구의 권유로 링크나우를 알게

되었다. 거기서 가입한 그룹 중 광주포럼을 온라인으로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오프모임에도 참석해 보니 그동안 틀에 박힌 학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매우 좋았다.

내가 모르는 동안 광주포럼은 광주광역시 빛창 블로그 2주년 행사에서 ‘소셜웹 포럼 in 광주’라는 제목의 오프행사를 통해 소셜의 한 축이 생겨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학원수업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회원들과의 교류도 별반 없었다. 2011년 ‘빛창’ 3주년 행사에서는 광주시 도시홍보 블로그의 전시 부스에 참여하여 광주포럼을 홍보할 수 있었고, 꿀짱 김용근님과 함께 ‘뉴미디어 활용 교육’ 강사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광주포럼 강의에 참여하고, 큰 행사를 치르는 동안 학원강의보다 소셜 강의에 더 재미가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기에 앞에서 강의하는 자체가 고역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서진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면서 광주포럼의 소셜웹 강사다. 그동안 모임에서 구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보니 꿀짱이란 별명도 얻었다.

2. 2012년 흑룡의 해 두 번째 달, 어느 때처럼 금요일 밤을 지새우며 인터넷 서핑에 열을 올리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토요일

새벽! 서울에서 광양으로 향하던 매화랜드 김영균대표가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 메시지에 유영진의 SNS실무코칭에 함께 가자면서 KTX 승차권을 애매하고서 문자메세지에 티켓사진을 보내왔다. 그 순간 집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가 9시에 출발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새벽차를 타기로 맘을 바꾸었다.

5시 30분 고속버스를 타고 9시 서울에 도착하여 갤럭시탭의 구글지도를 보아가며 경복궁 근처 '이영애 미래한국재단'을 찾아



나는 서진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면서 소셜 웹 강사다. 학원 강의와는 다른, 내가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산다.

한시간정도 늦게 10시 도착한 후 페이스북그룹을 중심으로 SNS실무코칭에 관해 이런저런 팁을 배우고, 인근 닭떡국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한 후 전철역까지 가는 도중 소셜선거전략에 관해 유영진대표와 강진영대표로부터 좋은 팁들을 들었다.

3. 원래 일정이었던 조정문의 한국웃음치려사연구소-명강사양성과정. 서둘러 교대근처의 교육장에 갔는데 이미 진행 중이었다. 미안한 마음을 추스르며 실전 강의스킬들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었다. 한국웃음치료사연구소 명강사양성과정을 통해 화술의 달인 신한생명 법인사업부 유광호팀장,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멘토링의 명강사이자 클래스인 소속의 이종승팀장, 명가수이자 재치와 유머가 풍부한 유머119 권지오 소장, 문화레크리에이션협회 황인원원장, GMI골프그룹 최경산 상무이사 부부, 지방의원을 3번이나 낙선하셨지만 오뎅기처럼 다시 일어난 개인택시 서성천사장님, 요가학원을 운영하시다가 100세 건강요가의 대가로 방향을 바꾼 임효림대표, 국가대표급 돈버는 블로그의 대표주자 블로그스쿨 조남관시삽, 20만 팔로우를 지닌 트윗 천재 박진명 등과 좋은 인연을 맺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소셜에 대해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 한 순간 한 순간이 만남의 즐거움으로 바뀌어 가고 덕분에 새로운 일거리까지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크다. SNS의 세계는 서로 주고받는 멋진 세상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기에 오늘도 떨어져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세상사는 이야기로 하룻밤을 지새운다. (gjsns.tistory.com)